

힘 부친 선발

KIA 마운드 변화 바람

힘 받는 불펜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KIA 타이거즈의 2017시즌 전반기는 ‘타고투저’로 표현할 수 있다.

‘신 해결사’ 최형우와 ‘에비역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 등으로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을 구축한 KIA는 무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뜨거운 화력으로 1위 질주를 해왔다.

하지만 마운드는 시즌 내내 KIA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마운드 내에서도 온도차가 컸다. 굳건한 원투펀치 헥터-양현종과 함께 ‘신형 잡수함’ 임기영의 예상 밖 활약 속에 든든한 선발진이 경기를 끌고 갔지만, ‘시범경기의 스타’ 한승혁의 난조

‘난세의 영웅’ 임기영·정용운 ‘부친의 늪’

임창용·홍건희·임기준 등 불펜은 안정세

속 임창용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펜진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가 전개되고 있다.

불타올랐던 방망이가 야수진의 전체적인 체력 저하와 크고 작은 부상 속에 주춤한 모양새, ‘선고후저’의 마운드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전반기 선발진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던 사이드암 정용운과 좌완 정용운이 후반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폐렴으로 한 달 정도 쉬었던 임기영은 후반기 세 차례 선발로 나와 14.1이닝 26피안타(2피홈런) 7사구 9탈삼진 15실점을 하며 9.4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

다. 물론 승 없이 2패만 더했다.

‘난세의 영웅’으로 활약을 해왔던 정용운에게는 더 아찔한 후반기다. 후반기 3경기에서 정용운이 버티준 시간은 9.2이닝에 불과하다. 후반기 평균자책점은 15.83까지 치솟았다.

두 선발 투수의 부진이 겹친 선발진과 달리 불펜에는 힘이 붙었다. 김윤홍이 강하게 크고 있는 가운데 임창용이 지난 주말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홀드와 세이브를 연달아 기록했다.

무엇보다 불펜에도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누구를 1군으로 올려야 하느냐”는 전

반기 고민이 후반기에는 “누구를 2군으로 내려야 하느냐”로 바뀌었다.

일단 가장 취약했던 좌완 불펜진 힘이 좋아졌다. 몇 년 동안 심동섭 홀로 지키다 시피 했던 좌완 불펜진에 임기준이 가세했고, 감기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지만 김명찬도 인상적인 피칭으로 기대를 모았다.

대졸 투키 박진태가 굿을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2군에서 선발 준비를 해왔던 홍건희도 불펜에서 우선 역할을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시즌 ‘구원왕’인 김세현이 새로 팀에 합류하면서 투수진의 긴장감도 커졌다.

불펜진이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우완 한승혁과 한기주, 좌완 고효준과 정동현은 콤팩트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군이다.

전반기 ‘타고투저’ 속에 애를 태우던 마운드가 경쟁의 바람 속에 1위 질주의 새 동력을 위한 재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리거 ML 소식

추신수 3안타...김현수, 장타로 이적 신고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 5번째 3안타 경기를 펼쳤다. 동지를 옮긴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이적 후 첫 안타를 시원한 장타로 장식했다.

추신수는 2일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3안타 몸에 맞는 공 1개로 맹활약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1회부터 날카롭게 돌아갔다. 상대 선발 에라스모 라미레스를 상대로 조구를 때려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은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2루수 굴절 뒤 우익수에게 향하는 안타를 터트렸다. 5회 외야 뜬공으로 아웃된 추신수는 7회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그리고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깔끔한 우중간 안타를 때려 1루를 밟았다.

7-8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타진 추신수의 값진 안타에 텍사스 벤치는 달라이노 드실즈를 대주자로 투입했다. 그러나 드실즈는 2사 후 무리해서 주루하다 3루

에서 아웃됐다. 텍사스는 시애틀에 7-8로 패했다.

김현수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원정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전날 필라델피아에서의 데뷔전에서 볼넷 3개로 선구안을 뽐낸 김현수는 이날 2회 초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선루타자로 나서 리키 놀라스코를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익수 쪽 2루타를 터트렸다.

이번 시즌 30번째 안타이자 5번째 2루타,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의 첫 안타다.

상대 실책으로 3루에 진루한 김현수는 그러나 프레디 갈비스가 내야 땅볼로 물러나며 득점은 실패했다.

4회 중견수 뜬공, 6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김현수는 9회 선루타자로 다시 한 번 타격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볼넷으로 1루를 밟았다. 이적 후 2경기 연속 멀티홈런(경기 2홈루 이상) 활약이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1-7로 패배, 최근 5연승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머리는 빗물에 감아야죠 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열릴 예정이던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시즌 9차전 경기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 우천취소가 됐다. KIA 헥터가 소나기 빗물에 머리를 감는 세례모니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민식 “이미 망한 타율 아쉽지 않은데...”

이적 유재신 “투수·포수 빼고 다 해봤다”

덕아웃 T 특독

▲제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임기준이다. 좌완 임기준은 잠재력에 비해 더딘 걸음으로 코칭스태프의 아쉬움을 사던 선수다. 올 시즌에는 한층 좋아진 제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140km 중반을 넘는 공을 던지면서 평균구속까지 끌어올렸다. 임기준은 ‘방향성’을 이어가겠다. 임기준은 “상체가 뒤로 빠져서 던졌었는데 앞으로 잡고 와 던지고 있다. 많은 시도를 연습을 했다”며 “지난 해에는 148km도 찍기는 했는데 평균구속이 좋아진 것 같다. 제구를 잡으려고 한 건데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웃었다.

▲타율은 망했지만 = 타율은 포기해도 팀 승리는 놓칠 수 없는 ‘안방마님’ 김민식이다. KIA는 지난 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1회초부터 8실점을 하면서 7-15 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화요일 14연승에 실패했다.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도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 최형우의 홈런과 나지완의 적시타로 3-9로 추격한 4회말. 김주형의 2루타까지 더해 만들어진 2사 2-3루의 기회에서 김민식이 타석에 섰다. 1볼 1스트라이크에서 김민식의 총알타구가 나왔지만 2루수 박경수의 좋은 수비에 2타점 적시타가 될 수 있던 타구가 2루수 직전타가 되고 말았다. 김민식은 “내 타율은 이미 망해서 안타가 아쉬웠던 것은

아니다. 초반 kt가 가시권에 있었던 만큼 분위기를 끌어오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투수 포수 빼고 다 해봤어 = 또 다른 유틸리티맨의 등장이다.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유재신은 1군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내야수 출신의 그는 지금은 외야수로 뛰고 있다. 무엇보다 빠른 발로 대주자로 이름을 알렸다. 유재신은 “감독님께서 내야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며 “투수, 포수 빼고 다 해봤다”고 웃었다. 또 “아직 적은 중인데 팀 분위기가 좋다. 하던 대로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대주자가 심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잘해야 본인 자리다. 처음 대주자 역할을 맡았을 때는 다리까지 떨렸다. 지금도 긴장은 되지만 많이 경험했고 잘 아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재신은 롯데 외야수로 활약했던 고 유두열의 아들이다.

▲잘 생각해 않았나요 = 감독의 눈에는 한없이 예쁜 어린 선수다. 김기태 감독은 2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최원준의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국가대표 발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을 받았다. “감독으로서 무조건 좋다”며 반색한 김 감독은 “유격수, 3루수 되고 외야수도 된다. 좌타자에 어찌든 강하고 발도 빠르다. 그리고 잘 생각한다. 잘 생각지 않았느냐?”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서포터즈인 'KIA Tigers Fan Team' 회원들이 지난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자신 초창행사를 열었다.

KIA 서포터즈, 소년·소녀 가장 초청 행사

KIA 타이거즈 팬들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한국프로야구 모토에 걸맞은 자선행사를 열었다.

KIA 서포터즈인 ‘KIA Tigers Fan Team’이 지난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등 어린이 100명, 지도사 20명, 봉사자 20명 등 140명을 초청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KIA Tigers Fan Team’은 지난 2015년 타이거즈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KIA의 서포터즈 팀이다. 전국 야구장을 찾아 열정적으로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이들은 야구를 통한 나눔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2015년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 위탁 가정의 어린이 113명을 초청해 처음 자선 행사를 열었던 이들은 지난해 어린이날에도 어린이 100명을 야구장으로 초청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이 4번째 자선 행사.

행사를 후원한 신고진 단장은 “여름 방학을 맞아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앞으로 야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KIA Tigers Fan Team은 올 시즌 전국 야구장서 74회 단체 응원을 하는 등 명문 팀 팬의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시즌 팀이 V11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팬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7일 뉴욕 메츠 상대 4승 도전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뉴욕 메츠를 상대로 시즌 4승에 제도전한다.

MLB닷컴은 2일(이하 한국시간) 다르빗슈 유(31)의 다저스 데뷔 일정을 전하며 이후 선발 로테이션을 전망했다.

류현진은 7일 오전 9시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메츠와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7월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의 올 시즌 최고 투구를 한 류현진은 6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하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투수는 다르빗슈다.

다저스는 논 탠트 트레이드 마감(현지 시간 7월 31일)을 앞두고 다르빗슈를 영입했다. 관심을 끈 다르빗슈의 다저스 데뷔전은 5일 메츠전으로 결정됐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클레이턴 커쇼가 허리, 브랜던 매카시가 오른손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6인 선발 로테

이션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르빗슈가 5, 6일 휴식 후 등판하는 일정을 선호하는 것도 로버츠 감독의 선발 로테이션 구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3연전에 마에다 겐타, 브록 스투어트, 알렉스 우드가 등판한다.

이후 메츠와 3연전에 다르빗슈와 리치 힐, 류현진이 차례대로 등판할 전망이다.

다르빗슈 영입으로 선발 경쟁이 치열해진 건 부담스럽지만, 류현진에게도 충분히 휴식하고 등판하는 일정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류현진은 5일 휴식 후 등판(13승 6패 평균자책점 3.17)을 가장 선호하지만, 6일 이상 쉬고 등판한 경기에서도 평균자책점 3.36(8승 6패)으로 호투했다.

메츠를 상대로 개인 통산 상대전적 4경기 2승 평균자책점 2.16으로 강했던 기억도 있어 류현진의 자신감은 더 자란 것으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6인 선발 로테

/연합뉴스

호날두 “탈세 혐의는 유명세 탓”

탈세 혐의로 법정에 다녀온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는 자신의 ‘빛남’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너무 빛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법률은 빛나는 등불만 공격한다”고 썼다.

전날 호날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법원에 출석해 탈세 혐의에 관련해 90분간 재판관의 심문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이름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이

기 때문”이라며 유명세 탓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스페인 일간 언론도는 전했다.

이날 호날두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드나들었는데 포르투갈TV SIC는 호날두가 당초 법원 밖에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었으나 심문이 잘 안 풀리자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앞서 1470만 유로(약 193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기소됐으며, 그중 1억 2000만 유로(369억 원)의 벌금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트 “난 여전히 가장 빠르다”

런던세계선수권 미디어테이서 자신감 보여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린 채 ‘마지막 무대’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선다.

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브루워리에서 열린 런던 세계선수권 미디어테이에서 볼트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 향했다. “당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

볼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볼트의 올 시즌 100m 개인 최고 기록은 9초95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집계한 시즌 랭킹은 공동 7위다.

볼트는 4월 절친한 친구이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인 저메인 메이슨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충격에 빠진 그는 한동안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30대에 접어든 나이, 충분하지 못한 훈련량 등을 언급하며 ‘볼트의 위기’를 전망하는 언론도 있었다.

하지만 볼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중요한 무대에 서면 나는 절대 지지 않는 사나이가 된다. 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100%”고 했다.

/연합뉴스